

군부대에서 선지식 초청 법회 열린다

‘불법중흥과 호국호법 발원’ 주제...천운·암도·정각 스님 등 법문

31사단 호국관음사

3월 15일부터 8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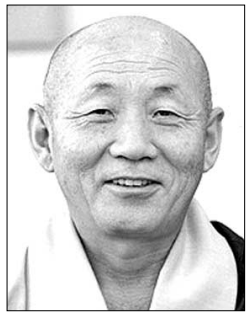
‘고승 및 선지식 초청 대법회’가 군부대에서도 열린다.

광주 전남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보병 31사단 산하 군법당 호국 관음사(주지 범망)가 화제의 도량. 호국 관음사는 오는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요일 종교활동시간(오전 10시 30분)에 여섯분의 스님과 두 명의 포교사를 초청해 법문을 듣는다.

‘불법중흥과 호국호법 발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에서는 대종사 조실 천운 스님(3월 12일), 불자기수 송춘회 포교사(19일),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26일), 전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4월 2일),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9일),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16일), 전 조계종 신도회장 박완일 법사(23일), 용화사 주지 수진



천운 스님



암도 스님



정각 스님

스님(30일)이 초청법사로 나와 ‘사자후’를 할 예정이다.

관음사 주지 범망 군법사는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로 신앙 전례화를 꾀하고자, 제방의 덕 높은 스님을 초청했다”며 “이번 법회는 일반대중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군과 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펼쳐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범망 군법사는 “관음사가 자리한 일곡지구는 군부대와 대규모 아파트 단

지가 조성된 신도시로 주변에 큰 사람이 없어, 이번 법회는 장병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호국 관음사는 상무대 이전에 따라 2000년 광주 일곡지구에서 건립된 군법당으로, 지역장병과 주민이 함께 신생활을 펼치고 있다. 호국 관음사 : 062) 571-7832

이준엽 기자

법주사, 신도교육 앞장선다 교양대학·신행법회 개최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가 체계적인 신도 교육을 통해 불자들에게 올바른 신행의 길을 제시하는데 앞장선다.

법주사는 2월 25일, 지난해 11월 다시 문을 연 불교교양대학 수료식 및 수계식을 2월 25일 봉행하는데 이어 교양대학 졸업생들과 신도들을 위한 ‘신해행(信解行)법회’를 개최하는 등 불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이끌어내는데 계획이다.

1995년 문을 연 법주사 불교교양대학은 신도 감소와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5년간 문을 닫았다가 충북지역 포교인력 배출을 위해 지난해 11월 재 운영하게 됐다.

모집 당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강신청을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끈 교양대학은 올해 총 6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교양대학 졸업생들은 3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열리는 ‘신해행(信解行)법회’를 통해 배움과 실천을 이어나간다. 신해행 법회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믿고 이해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는 뜻에서 마련된 법회로, 사시불공기도와 포교국장 각우 스님의 경건 강의로 진행된다.

각우 스님은 “교양대학과 신해행 법회 등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신도 교육을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자의 삶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주사 불교교양대학은 14차 교육을 4월 12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한다. (043)543-3615

여수명 기자



섬 속에 절이 있네

부안 위도 내원암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가 체계적인 신도 교육을 통해 불자들에게 올바른 신행의 길을 제시하는데 앞장선다.

법주사는 2월 25일, 지난해 11월 다시 문을 연 불교교양대학 수료식 및 수계식을 2월 25일 봉행하는데 이어 교양대학 졸업생들과 신도들을 위한 ‘신해행(信解行)법회’를 개최하는 등 불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이끌어내는데 계획이다.

1995년 문을 연 법주사 불교교양대학은 신도 감소와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5년간 문을 닫았다가 충북지역 포교인력 배출을 위해 지난해 11월 재 운영하게 됐다.

모집 당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강신청을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끈 교양대학은 올해 총 6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교양대학 졸업생들은 3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열리는 ‘신해행(信解行)법회’를 통해 배움과 실천을 이어나간다. 신해행 법회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믿고 이해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는 뜻에서 마련된 법회로, 사시불공기도와 포교국장 각우 스님의 경건 강의로 진행된다.

각우 스님은 “교양대학과 신해행 법회 등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신도 교육을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자의 삶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주사 불교교양대학은 14차 교육을 4월 12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한다. (043)543-3615

여수명 기자

스님-종무원 자비행 나서

회업선우회 창립, 독거노인 등에 봉사활동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종무원들이 지역사회의 봉사 일선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구례 화엄사 사중 스님과 재가 종무원 30여명은 지난 2월 9일 대웅전에서 ‘회업선우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소외된 이웃을 직접 방문해 자비행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주지 종사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묵묵히 일하는 재가종무원이 사중 스님들과 하나 되어 봉사단을 결성한 오늘을, 화엄사 장건



2월9일 구례 화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회업선우회’.

이래 가장 뜻깊은 날이다”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업선우회는 주지 종사, 포교국장 대요 스님 등 사중 스님 15명과 재가 종무원 20여명이 전원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청소, 세탁, 반찬 만들기 등의 나눔행사를 펼친다. 또한 매월 정기법회에는 종무원 자녀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회업선우회 실무를 맡고 있는 고경 사회과장은 “회업사 합창단, 신도회 등 각종 신행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참여토록 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감동수가 되는 봉사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제주불교문화 개발 청소년 포교 앞장”

제주 관음사 거사법회 출범



제주 관음사(주지 우홍)는 2월 15일 시내 포교당(보현사)에서 거사법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총회를 결한 이날 법회에서 관음사 회주 종원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제주불교 본사인 관음사에 거사법회가 탄생되어 기쁘다”며 “끊임없는 정진과 포교로 제주불교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강원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화합을 우선으로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해 포교와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며 “청소년 포교, 제주 불교문화 개발, 관음사 성역화를 중점사업으로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회장은 현재 제주도4-H연맹 회장, 제주교도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이 그려낸 청화 큰스님 일대기!

장죄불와, 하루 한 끼, 토굴 수행, 칼날처럼 치열했던 청화스님의 40년 구도의 길

청화 큰스님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다가 가신 도인(道人)이다. 자리에 놓이지 않는 장죄 불와의 수행을 평생 지켜왔던 청화 큰스님. 그는 도교의 실체를 증명한 우리 시대의 선승이자 스승이다.

청화 큰스님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소설로 재구성한 뛰어난 소설, 베스트셀러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씨가 ‘진실적 수행승’이 아닌 ‘인문적 구도자’로서의 스님을 되살렸다. - **중앙일보**

장죄불와, 토굴 수행을 하며 당대의 선승으로 꼽힌 청화스님(1924~2003)의 일대기 신동으로 주목받던 청화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출가 이후의 칼날 같은 구도의 길을 생생하게 전한다. - **경향신문**

청화 큰스님의 죽적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임을 가늠하게 해준다. - **서울경제신문**

남지심 장편소설 **청화 큰스님** 1·2

남지심 지음 | 전2권 | 신국문 | 각권 8,500원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샘물 같은 이야기
매 순간 행복하게, 매 순간 후회없이 사는 법

마음 밖으로 걸어가라

정각 스님 지음 | 225쪽 | 값 9,800원

인문과 불교계가 격찬한 최고의 불교 성지 순례기!
진리의 길을 따라 퍼져나간 2,500년 불교 역사의 현장

다르마로드 1·2

조병환 지음 | 각권 400페이지 내외 | 각권 값 32,000원

고즈넉한 정취가 있는 산사로의 여행
전국 21개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완벽정리!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

유영삼 지음 | 265쪽 | 값 12,000원